수석부위원장 후보
정 철 (43세)

10년 전, 사라진 노조를 다시 설립하여 KB손해사정지부의 초대 지부장으로서 1년 만에 조합원 1천여 명의 대형 조직으로 성장시켜왔습니다.

노조 가입율 10% 시대에 아직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 땅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0만 사무금융노동자 시대를 열어가는 동시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산별의 힘이 지부의 힘이라 생각하고, 투쟁이 있는 곳은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으로 강한 산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단결!! 투쟁!!

부위원장 후보
김 소 연 (36세)

크고 작은 갈등으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투쟁하며 견디고 계신 동지 여러분!

저 역시 갖은 풍파와 근심 많은 사무금융노동자로서, 양극화 시대의 청년노동자로서, 일상적 폭력에 직면한 여성 노동자로서,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노동현장에는 위법, 위헌인 사규(社規)나 각종 허울뿐인 제도들이 아직도 수 없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가 그래왔다는 이유로, 정부 고위 관료가 시켰다는 이유로, 우리의 피맺힌 단결과 투쟁의 구호가 종종 묵살되어 온 결과들입니다. 일상의 노동현장을 바꾸려면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단결!! 투쟁!!

사무처장 후보
임 동 근 (43세)

생명보험지부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무금융노조 아래 모든 조직이 화합과 단결의 기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장의 소리에 즉시 반응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4대 집행부는 현장에 더욱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으로 동지들에게 진정 힘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된 업종 및 지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명실공히 우리 노조가 화합과 단결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무금융노동조합이 되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달리겠습니다. 단결!! 투쟁!!

젊고 건강한 현장중심!
미래로! 사회연대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무금융노조!!

기호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후원계좌 KB국민은행 839202-04-187022 임동근

기호 2번 후보는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선거기간 전후 가맹조직간 갈등을 우려하여 선거대책본부 명단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동운동의 시대교체(時代交替)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987년 6.10항쟁의 주역, '넥타이부대'의 후배들인 사무금융노조는 출범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노조는 바야흐로 2020년을 맞이하며 제4대 집행부를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그간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갈등과 대립의 위기 상황에도, 혹독한 노동탄압의 시기에도 동지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연대해 왔기에 업종의 벽을 뛰어넘어 100개에 달하는 지부와 4만여 조합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대 부설기관(정책연구소, 교육원, 법률원)의 기능과 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노조 산하의 업종과 지부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간부들의 역량과 조합원들의 노동자 의식 제고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법제도 개선 투쟁, 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약을 추진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의 저지를 위해 투쟁하며 촛불혁명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제4기 집행부는 더 새롭고 더 강한 사무금융노조를 실현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지켜온 사무금융 노동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더 많은 후배들이 함께 동참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집행부 동안 일구어낸 노조의 조직적 성장과 노조의 기능적 발전을 유지하면서 보다 더 현장 중심의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진단과 현장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무관심했던 후배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무금융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현장중심의 사무금융노조를 실현하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시대교체(時代交替)를 다짐하는 제4기 집행부 출범을 위해 사무금융동지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단결!! 투쟁!!

위원장 후보
이 경 (48세)

1 시대교체(時代交替)!! 더 새롭고, 더 강한 사무금융노조 실현

(노조 내 모든 업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무금융노조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 및 여전법 개정
- 각종 협회별 역할 재정립 및 소형 지부 현장소통 강화
- 사적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IFRS17(국제회계기준)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 영향도 파악 및 대응
- 공공기관 예산 자율권 확보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
- 증권 거래시간 단축 및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개정

기호 2 **이 경** 정 철 김소연 임동근

2 대 산별노조 체제 확립 및 기능 강화

(사무금융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 사무금융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법제도 개선 활동 강화
-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신규조직에 대한 멘토링 및 체계적 지원
- 정당, 시민단체, 국제노총과의 정책연대 등 교류사업 추진
- 연맹과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민주노조 기풍 확립 및 대 산별노조 완성

3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현장활동 강화

(산별노조? 상급단체? 잘 모르신다구요?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있겠습니다!)

- 전 조합원 참여와 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한 현장활동 강화
- 정기적 현장 방문 및 가맹조직 별 고충 및 건의사항 상시 수보
- 가맹조직 별 조직문화, 노사관계, 집행부 지지도, 조합원 의식 등 세부화된 조직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최적의 지원 사항 마련
- 성 평등 조직문화 완성 및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 활동 강화 및 대응

4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연대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 및 금융 공공성 강화

(지주회사의 계열사 경영간섭, 노사개입을 철폐하고, 전 업종간 연대를 이루겠습니다!)

- 지배구조 개선 및 노사상생을 위한 대 금융지주 투쟁 강화
-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투본 조직 확대, 정기적·객관적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 중앙은행의 내부경영 독립성 확보 및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구축

5 분절(分節)의 노동을 넘어 통합의 사회연대 활동 강화

(조합원이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사무금융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노·정간 소통채널 강화 및 정당간 정책 연대 확대
- 금융 노동정책 연구, 개발, 심화를 통한 정책제안 기능 강화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분투(UBUNTU) 제2기 사업 추진 등 노조의 장/단기적 사회적 책임 확대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노동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내외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및 참가

6 선출직 임원의 도덕성 강화 및 본조의 헌신성 확대

(동지들이 내주신 의무금은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선출직 활동비 개선 등 투명한 회계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예산 세부업무처리지침 개선으로 집행 적정성 제고
- 현장 중심 의견을 반영한 노조 규약/규정 등 제·개정